

原版 세이의 法則과 케인즈版 세이의 法則

林 元 澤*

<目 次>

- I. 單純商品生産에 있어서의 經濟變動
- II. Ricardo 對 Malthus 論爭에 대한 Lange의 見解
- III. Clower·Sowell에 있어서의 Walras의 法則과 Say의 法則
- IV. Marx의 再生産表式에 나타난 原版 Say의 法則과 Keynes版 Say의 法則

I. 單純商品生産에 있어서의 經濟變動

1. Say의 法則이 經濟學史上 커다란 爭點으로 登場한 것은 Keynes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Keynes가, 『一般理論』에서, 古典學派는 Say의 法則을 意識的이든 無意識的이든 다 採擇함으로써 完全雇傭均衡理論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自身은 完全雇傭均衡理論과 그의 理論의 基礎가 되고 있는 Say의 法則을 排擊하고 不完全雇傭均衡理論과 그의 理論의 基礎가 되는 有効需要의 原理를 提唱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所謂「Keynes 革命」이 發生되었다고 되고 있다.

Sowell은, 그의 著書『Say의 法則』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Say의 法則은 經濟學史上에 있어 2個의 가장 網羅的이고 苛烈하고 永續的인 論爭(two of the most sweeping, bitter, and long-lasting controversies)을 發生시켜 놓았다. 첫번째는 19世紀初이고 두번째는 그로부터 百年이 지난 1930年代의 Keynes 革命에 있어서이다. 이 論爭의 過程은 各各 20年以上이 繼續되었으며, 그 時代에 있어서의 著名經濟學者 全部가 거기에 關聯되었고, 基本的인 經濟理論·方法論·社會政策 等に 影響을 미쳤다. 이 論爭으로부터 發生한 衝擊의 波浪은 經濟學領域을 넘어서 經濟學의 技術의 論爭點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까지에도 미쳤다. 回顧해 보건데 Say의 法則의 歷史는 一般的인 知的 歷史의 重要한 하나의 部分이었다는 것이 明白해지게 되었다」. 繼續해서 Sowell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經濟學의 基本을 뒤흔들어 놓은 Say의 法則에 관한 二大論爭(two great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本文中 이룰때면 p.30의 第24行의 (198 參照)는 林元澤, 『第二資本論』(一潮閣, 1978)에서의 198項目을 指示한 것이, 本論文은 現代基金의 財政의 支援을 받아 作成된 것이.

controversies)은 許多한 點에 있어 類似點을 갖고 있으나 한가지 核心的인 差異點을 갖고 있다. 즉 19世紀에 있어서는 Say의 法則이 赫赫한 勝利를 거두었었는데 反해서, 20世紀에 있어서는 反對派가 勝利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勝利에 있어서도 知的 게릴라戰이 따랐었다. 19世紀末의 巨大한 게릴라鬪士는 Karl Marx 였고, 1930年, 40年代 Say의 法則이 覇權을 奪取된 뒤 Keynes가 得勢하던 때의 有效한 反革命을 企圖한 게릴라의 最大鬪士는 Milton Friedman 이었다」⁽¹⁾. 그런데 Sowell 에 의하면, Say의 法則을 둘러싸고 展開된 論爭은 結局 一般的 過剩生産을 둘러싼 論爭이었다는 것이다.

2. 그리고 Sowell 이 Say의 法則을 受容해 들인 Ricardo, J.S. Mill 등은 진짜 經濟學者이며, 그를 受容해 들이지 못했던 Malthus, Sismondi 등은 가짜 經濟學者 또는 아웃사이더라고 함으로써 그들을 여지없이 誹謗하고 있는데 대해서, McCracken 은, 그의 著書『價值論과 景氣循環理論』에서, 反對로 Malthus, Sismond 등이 진짜 經濟學者이며 Ricardo 는 잉터리 經濟學者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dam Smith 에 의해서 確立된 〈自然價格〉과 〈交換價值〉는 2個의 서로 相違한 價值概念을 發生시켜 놓았다. 즉 하나는 投下勞動價值論이고 또 하나는 需要供給의 價值理論 즉 支配勞動價值論이다」⁽²⁾. 「投下勞動價值論은 景氣循環을 論理的으로 說明할 수가 없다. 投下勞動價值論은 長期趨勢에 관한 說明에 그치지거나 아니면 論理的으로 全的으로 틀린 景氣循環理論을 展開한다. 한편 建設的인 景氣循環理論은 Malthus에 의해서 確立된 支配勞動價值論으로부터 誘導될 수 있다. 그러므로 最初의 景氣循環理論 確立者의 榮譽은 당연히 Malthus 로 돌아가야 된다」⁽³⁾. 이리하여 Sowell 에 의해서 正統學派의 巨頭요 「優秀한 分析用具」(analytical superiority)를 갖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었던 Ricardo 는 땅에 떨어져지고, 「진짜 經濟學者가 아닌」(not primarily economists) 「人口研究者」(a population theorist)로 指目되고 있었던 Malthus 가 높이 評價되고 있다.

이랬다 저랬다——學問이 아무리 對立의 辨證法的 相克의 過程에서 發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兩極的 對立을 볼 때, 우리는 理論經濟學의 基本이 아직도 整理·定立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切實히 느끼게 된다. Sowell 은 Say의 法則과 「均衡所得의 理論」(一般的 過剩生産理論)을 對立시켜서 論議하고 있는데 대해서, McCracken 은 價值論과 景氣循環理論과의 關係를 論議하고 있다. 그리고 Sowell 의 冊에서는 價值論에 관한 言及이 全的으로 빠지고 있다.

3. 그리고 Sowell 이 規定하고 있는 Say의 法則에 있어서도 疑問點은 아직 남아 있다. 아

(1) Th. Sowell, *Say's Law*, 1972, pp. 3-4.

(2) H.L. McCracken, *Value Theory and Business Cycle*, 1933, p. 3.

(3) *Ibid.*, p. 5.

니 그보다 먼저 Keynes 自身이 規定해 놓은 Say의 法則이라는 것부터가 도대체 曖昧模糊하며 형성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는 闡明해 놓아야 할 時期에 到達했다는 것을 꼭 말해야만 되겠다. 왜냐하면 Keynes에 의해서 規定된 Say의 法則 즉 「供給은 그 自體의 需要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Keynes의 경우에 있어, Say 自身이 闡明한 것과는 전혀 別個의 意味內容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Say 自身에 의해서 定立된 Say의 法則은 O. Lange가 그것을 彫琢해서, 『Say의 法則, 再述과 批判』(1942年)에 있어 定式化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Say의 法則은 Keynes에 의해서 定式化된 Say의 法則과는 아주 判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가지 우스운 것은, Lange가 『Say의 法則, 再述과 批判』을 執筆했을 때가 1942年이므로, 그때 Lange는 이미 出刊되고 있을 Keynes의 『一般理論』을 읽고 Keynes가 規定한 Say의 法則에 관해서도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터인데에도 不拘하고, 그에 관한 自己 自身의 見解를 自己 論文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잘못되어도 이만저만 잘못된 것이 아니다(Sowell의 冊에서도 Lange에 관한 단 한마디의 觸及도 나오지 않고 있다.)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Keynes의 『一般理論』이 出版된 後에 모든 經濟學者가 一齊히 Say의 法則을 「排擊」하고 나섰는데, 그 「Say의 法則」이라는 用語自體가 確定된 意味內容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니——정말 웃기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 有象無象 가운데 단 한사람 즉 Sweezy만은 이 견장을 수 없는 混亂의 真相을 把握하고 있었다. Sweezy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古典經濟學者들은 終始一慣해서 單純商品生産과 資本主義的 生産을 區別 못했다는 點에 있어 그들에게는 歷史的 展望(historical perspective)이 缺如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單純商品生産이라는 暗黙裡의 前提下에서 만들어진 定理가 往往 一般化되어 그리고 無批判的으로 資本主義的 生産에 適用되었었다. 그 가장 明白한 例의 하나가……J.B. Say의 이름에 의해서 呼稱되는 Say의 販路法則이라는 有名한 原理이다」⁽⁴⁾. 즉 Sweezy에 의하면 Say의 法則은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만 成立될 수 있는 歷史的 場所를 確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4. 우리가 「第1編 第4章 第4節 Say의 販路法則」에서 본 Say의 法則은 바로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Say의 法則과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類型의 Say의 法則을 Say 自身은 主張했으며 Lange가 取扱한 Say의 法則도 다름아닌 바로 이러한 類型의 Say의 法則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Keynes가 『一般理論』에서 定式化한 Say의 法則은 이러한 類型의 Say의 法則이 아니고, 外樣은 비슷하면서도 質的으로는 그와 전혀

(4) P.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p. 136.

相異한 類型의 Say의 法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Keynes가 規定해 놓은 Say의 法則은 그러던 어떠한 類型의 Say의 法則이라는 말인가. 端的으로 表現하면, Say 자신이 規定해 놓은 Say의 法則(이것은 앞으로 「原版 Say의 法則」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은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만 成立될 수 있는데 대해서, Keynes가 定式化한 Say의 法則(이것은 앞으로 「Keynes版 Say의 法則」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서만 成立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原版 Say의 法則」이 어떻게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만 成立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第1編 第4章 第4節」에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問題에 관해서는 더 以上 論及하지 않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Keynes版 Say의 法則」이 어떻게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가 하는 것만을 보기로 하자.

5. Keynes는 Say의 法則을 다음과 같이 定式化하고 있다. 「生産物의 生産費는 항상 (always) 總體로서 需要로부터 結果되는 販賣代金에 의해서 補償된다.」 또는 「社會에 있어서의 生産活動에 參與하는 모든 要素가 總體로서 獲得하는 所得은 必然的으로 (necessarily) 生産物의 價値와 같아지게 된다⁽⁵⁾.」 「生産物의 모든 量에 있어 全體로서의 生産物의 總需要 價値는 그 總供給價値와 같다.⁽⁶⁾」 「個個人의 貯蓄行爲는 必然的으로 (necessarily) 平行的인 投資行爲로 誘導된다.⁽⁷⁾」 이것은 또 다음과 같이도 表現될 수가 있을 것이다.

$$\begin{aligned} \text{生産費(總供給價値)} &\equiv \text{賃金} + \text{利潤} \equiv \text{消費} + \text{貯蓄} \\ \text{貯蓄} &\equiv \text{投資} \\ \text{生産費(總供給價値)} &\equiv \text{販賣代金(總需要價値)} \end{aligned}$$

여기서 ① 우선 留意해 두어야 할 것은, 上記 「Keynes版 Say의 法則」이 資本主義的 商品 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서만 成立될 수 있으며, ② 다음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生産費」 가운데는 賃金과 더불어 超過利潤도 包含되고 있다는 것이며, ③ 마지막으로 注意해 두어야 할 事項은 貯蓄은 無條件 必然的으로 投資로 돈다는 ($S \equiv I$) 貯蓄先行說이다.

그런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Keynes版 Say의 法則」을 더욱 明確하게 즉 期間表示를 함으로써 定式化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5)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p. 20.
 (6) *Ibid.*, p. 26.
 (7) *Ibid.*, p. 21.

生産費(t 期) \equiv 賃金(t 期) + 利潤(t 期) \equiv 消費(t 期) + 貯蓄(t 期)

貯蓄(t 期) \equiv 投資(t 期)

生産費(t 期) \equiv 販賣代金(t 期)

즉 「Keynes 版 Say 의 法則」은 「 t 期의 生産物 가운데에 包含되고 있는 利潤이 t 期의 生産物을 購買한다.」는 것이 前提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明白히 Marx 의 再生産表式이 取하는 理論路線과 同一한 것이며, 따라서 「Keynes 版 Say 의 法則」은 Marx 의 剩餘價值論 위에 立脚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eynes 版 Say 의 法則」은 또 다음과 같이도 表示될 수 있을 것이다. $G_t - W_t < \frac{P}{A} \dots P \dots W'_t - G'_t$ 에 있어

$$G_t - U_t \equiv Z_t \equiv A_t + B_t \equiv C_t + S_t \equiv C_t + I_t \equiv G'_t - U_t \equiv D_t$$

但 Z 는 總供給價格, D 는 總需要價格, U 는 減價償却費 + 原料費, A 는 賃金, B 는 利潤을 各各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같은 Say 의 法則이라는 名稱을 갖고 있으면서도, 「原版 Say 의 法則」과 「Keynes 版 Say 의 法則」은 그들이 成立되는 歷史的 場所가 不同으로써 서로 아무런 關聯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質적으로 전혀 相異하는 2 個의 Say 의 法則을 同一視함으로써 200 年 동안이나 甲論乙駁을 해왔으니, 經濟學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하는 것이 새삼스러히 痛切하게 느껴진다. 새삼 Marx 의 「歷史的 觀點」의 威力을 切感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와 같은 區分 밑에서 過去에 行해진 Say 의 法則에 관한 論爭을 다시 한번 整理해 보기로 하자.

6. 우선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만 成立되는 Walras 의 法則과 「原版 Say 의 法則」이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經濟變動을 說明해 낼 수 있는 原理가 된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同時點의 同一市場에 있어서의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經濟變動을 이미 Hicks 의 「多數商品交換의 安定條件」에서 보았다⁽⁸⁾. 그런데 그 經濟變動은 價格을 媒介變數로 해서 이루어지는 需要供給의 「不均衡→均衡」에 관한 經濟變動이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미 經濟變動 가운데 「時點」(dating)이 들어가는 Hicks 의 所謂 「經濟動學」에 관해서도 보았다. Hicks 의 「經濟動學」이란, 異時點異市場間에 있어서의 經濟變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Hicks 의 「經濟動學」 즉 異時點異市場間의 經濟變動에 관한 理論은 「週의 一時的

(8) 林元澤, 「왈라스·히스의 安定條件」, 『李在喆回甲紀念論文集』, 1984.

均衡의 連續」에 관한 理論이 되는데, Hicks 에 의하면, 그 「週의 一時的 均衡의 連續」 즉 「每月曜日의 均衡의 連續」이 만드시 「均衡의 連續」이 된다는 保障이 없으며, 때로는 不均衡도 發生될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Hicks 에 의하면 不均衡은 「現實의 均衡價格」과 「豫想된 均衡價格」이 一致되지 않을 때 發生된다고 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問題삼아 보기로 하자. 216에서 우리는 單純商品生産을 $\sum W - \sum G - \sum G' - \sum W'$ 이라고 表記하고 $\sum G \geq \sum G'$, $\sum W \geq \sum W'$ 일 때에는 Walras 의 法則이 成立되지만, $\sum G \equiv \sum G'$, $\sum W \equiv \sum W'$ 일 때에는 「原版 Say 의 法則」이 成立된다고 平板의인 論述을 한 바 있는데, 單純商品生産 $W - G - W'$ 에 있어서의 經濟變動을 取扱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그것을 若干 修正해 둘 必要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A 가 닭(鷄)을 팔아서 돼지(豚)를 산다고 하자. $W_1(\text{鷄}) - G_1 - G'_1 - W'_1(\text{豚})$. 그리고 B 는 돼지(豚)을 팔아서 닭(鷄)을 산다고 한다. $W_2(\text{豚}) - G_2 - G'_2 - W'_2(\text{鷄})$. 그럴 때에는 $W_1(\text{鷄}) - G_1$ 과 $W_2(\text{豚}) - G_2$ 는 同一期間 t 期에 있어 그리고 $G'_1 - W'_1(\text{鷄})$ 와 $G'_2 - W'_2(\text{鷄})$ 도 同一期間 t+1 期에 있어 成立된다는 것, 즉 $W_{1t}(\text{鷄}) - G_{1t} - G'_{1t+1} - W'_{1t+1}(\text{豚})$, $W_{2t}(\text{豚}) - G_{2t} - G'_{2t+1} - W'_{2t+1}(\text{鷄})$ 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強力히 主張하고자 한다. 즉 t 期에 開設된 닭(鷄)市場과 돼지(豚)市場에서 A 는 B 를 除外한 其他 사람들에게 닭(鷄)을 팔아서 G_{1t} 를 獲得하고, 한편 B 는 A 를 除外한 其他 사람들에게 돼지(豚)를 팔아서 G_{2t} 를 獲得하고, t+1 期에 開場된 돼지(豚)市場에서 A 는 G'_{1t+1} 를 使用해서 돼지(豚)를 사고, 그리고 역시 t+1 期에 開場된 닭(鷄)市場에서 B 는 G'_{2t+1} 를 使用해서 닭(鷄)을 각각 사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錯覺해서는 안될 事項은 $G'_1 - W'_1(\text{豚})$ 가 $G'_{1t+1} - W'_{1t+1}(\text{豚})$ 가 됨으로써 $W_{2t}(\text{豚}) - G_{2t}$ 과 同時點 同一市場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G'_2 - W'_2(\text{鷄})$ 가 $G'_{2t+1} - W'_{2t+1}(\text{鷄})$ 이 됨으로써 $W_{1t}(\text{鷄}) - G_{1t}$ 과 同時點 同一市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G'_{1t+1} - W'_{1t+1}(\text{豚})$ 과 $W_{2t}(\text{豚}) - G_{2t}$ 가 그리고 $G'_{2t+1} - W'_{2t+1}(\text{鷄})$ 과 $W_{1t}(\text{鷄}) - G_{1t}$ 가 同時點 同一市場이 된다면, 그 때에는 貨幣를 媒介로 하는 間接交換 즉 單純商品生産 $W - G - W'$ 이 成立되지 않고 닭(鷄)과 돼지(豚)를 맞추는 物物交換 $W - W'$ 이 成立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W_{1t}(\text{鷄}) - G_{1t}$ 와 $G'_{2t+1} - W'_{2t+1}(\text{鷄})$, $W_{2t}(\text{豚}) - G_{2t}$ 와 $G'_{1t+1} - W'_{1t+1}(\text{豚})$ 은 또 構造의으로 若干의 變化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G'_{2t+1} - W'_{2t+1}(\text{鷄})$, $G'_{1t+1} - W'_{1t+1}(\text{豚})$ 의 市場은 $W_{1t}(\text{鷄}) - G_{1t}$, $W_{2t}(\text{豚}) - G_{2t}$ 의 t 期에 있어서의 市場에서 賣買가 行해지고 난 後의 t+1 期에 있어서의 市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 즉 「經濟動學」의 見地에서 볼 때, 222의 Walras의 法則 $\sum_{i=1}^{n-1} P_i D_i = \sum_{i=1}^{n-1} P_i S_i (\Delta M \equiv D_n - S_n = 0)$ 과 223의 Say 의 法則 $\sum_{i=1}^{n-1} P_i D_i = \sum_{i=1}^{n-1} P_i S_i (\Delta M \equiv D_n - S_n = 0)$ 는 成立不可

能할 것이 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sum_{i=1}^{n-1} P_i D_i$ 는 $t+1$ 期의 市場에 屬하고 있는 데 대해서, $\sum_{i=1}^{n-1} P_i S_i$ 는 t 期의 市場에 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經濟動學」의 見地에서 Walras의 法則 $\sum_{i=1}^{n-1} P_i D_i = \sum_{i=1}^{n-1} P_i S_i$ ($\Delta M \equiv D_n - S_n = 0$)과 Say의 法則 $\sum_{i=1}^{n-1} P_i D_i \equiv \sum_{i=1}^{n-1} P_i S_i$ ($\Delta M \equiv D_n - S_n \equiv 0$)을 成立可能한 것으로 만들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操作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즉 $\sum_{i=1}^{n-1} P_i D_i$ 도 $\sum_{i=1}^{n-1} P_i S_i$ 도 다 같이 $t+1$ 期의 市場에 屬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Walras의 法則과 Say의 法則을 取扱할 때에는 $\sum_{i=1}^{n-1} P_i D_i$ 도 $\sum_{i=1}^{n-1} P_i S_i$ 도 다 같이 $t+1$ 期의 市場에 屬하는 것으로 되고 있으므로 이點 錯覺 없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7. 그러면 異時點異市場間의 $\sum W_t - \sum G_t - \sum G'_{t+1} - \sum W'_{t+1}$ 을 前提로 해서 어떠한 經濟變動이 發生되는가 하는 經濟動學에 관한 우리 나름의 理論展開를 해보기로 하자.

우선 Walras의 法則이 成立한다고 할 때, 즉 $\sum W_t - \sum G_t - \sum G'_{t+1} - \sum W'_{t+1}$ 에 있어서의 $\sum G_t$ 와 $\sum G'_{t+1}$ 사이에 貨幣의 流出·流入이 있다고 할 때, 즉 $\sum G_t - \sum G'_{t+1} \geq 0$ ($\Delta M \equiv D_n - S_n \geq 0$)이 成立된다고 할 때 (222參照), 換言하면 $\sum W_t - \sum G_t - \sum G'_{t+1} - \sum W'_{t+1}$ 過程의 外部에 貨幣 stock 이 存在한다고 할 때,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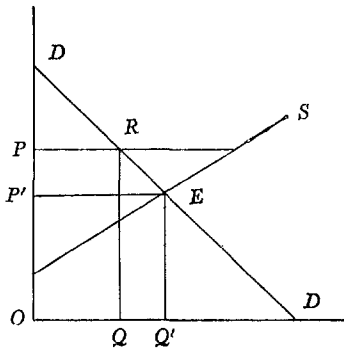
t 時點에 있어서의 $\sum W_t - \sum G_t$ 市場에서 $\sum W_t$ 만큼의 「商品供給額」의 賣買가 行해진 結果 $\sum G_t$ 만큼의 「貨幣需要」가 發生했으며 $\sum G_t$ 만큼의 貨幣가 市場參加者의 주머니속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市場參加者들은 거기서 獲得한 貨幣를 가지고 $t+1$ 期의 $\sum G'_{t+1} - \sum W'_{t+1}$ 市場에 參加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前記한 바와 같이, 「商品需要額」 $\sum W'_{t+1}$ 는 「商品供給額」 $\sum W_t$ 과 同時點同一市場에 있어 成立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럴 때, $t+1$ 期의 市場에 있어, 貨幣의 流出·流入이 있다고 할 때, 社會의 極大滿足을 假定한다면, $\sum_{i=1}^{n-1} P_i D_i = \sum_{i=1}^{n-1} P_i S_i$ 와 같은 均衡狀態를 示顯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금 더 詳細하게 말한다면 $t+1$ 期에 있어서의 各 商品市場의 全部가 需要量=供給量이 됨으로써 均衡價格·均衡的 去來가 實現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貨幣的 均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各 商品市場마다, 하나의 例外도 없이, 需要量=供給量을 實現케 함으로써 均衡價格·均衡的 去來가 現實적으로 實現될 수 있게 하는 原動力은 무엇이라는 말인가. 그것이야말로 各 商品市場이 均衡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社會的 極大滿足이 成就될 때까지 얼마든지 貨幣가 外部로부터 流入될 수 있고 또 反對로 外部로 流出될 수도 있다는 條件이다. 즉 外部에 貨幣 stock 이 存在하고 있다는 條件이다. 그리하여 Walras 法則이 成立될 때, 즉 外部에 貨幣 stock 이 存在한다고 할 때에는, 「均衡($t+1$ 期)→均衡($t+2$ 期)→均衡($t+3$ 期)」과 같은 「均衡의 連續」의 經濟動學이 成立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8. 다음에는 「原版 Say의 法則」이 成立된다고 할 때에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어떠한 經濟變動이 發生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原版 Say의 法則」을 Lange는 $\Delta M \equiv D_n - S_n \equiv 0$ 라고 表示했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하면, Walras의 法則의 경우와는 反對로, t 期の 市場에서 市場參加者手中에 들어간 「貨幣需要」 $\sum G_t (\equiv D_n)$ 는 $t+1$ 期の 市場에서 그냥 그대로 즉 外部로부터의 貨幣의 流入도 없고 反對로 外部로의 貨幣의 流出도 없이 全額 「貨幣供給」 $\sum G'_{t+1} (\equiv S_n^{t+1})$ 으로 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즉 「原版 Say의 法則」의 경우는 外部에 貨幣 stock이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經濟變動이 發生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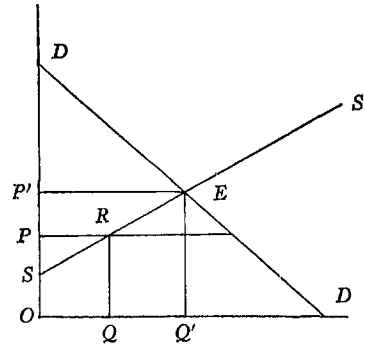
一定額의 「貨幣供給」 $\sum G'_{t+1} \equiv S_n^{t+1}$ 이 $t+1$ 期の 市場에 參加함으로써 有效要需化할 때 各 商品市場마다 一定의 固定된 有效需要 밖에 發生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各 商品市場마다 반드시 需要量=供給量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原則적으로 各 商品市場마다 超過供給 또는 超過需要가 이루어짐으로써 不均衡價格·不均衡的去來가 發生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外部에 貨幣 stock이 存在한다고 하면 外部로부터 貨幣가 流入되거나 아니면 外部로 貨幣가 流出되어 各 商品市場마다의 需要量=供給量이 實現되는 均衡價格·均衡的去來가 示顯될 수 있으나, 「原版 Say의 法則」의 경우는, 外部에 存在하는 貨幣 stock을 認定하지 않는 것으로 되고 있으므로, 各 商品市場마다의 需要量=供給量이 實現되는 均衡價格·均衡的去來가 實現될 수가 없고 대신 不均衡價格·不均衡的去來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原版 Say의 法則」의 特色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原版 Say의 法則」이 適用되는 경우의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經濟變動은 「不均衡($t+1$ 期)→不均衡($t+2$ 期)→不均衡($t+3$ 期)」이 되게 될 것이다.

다음에 不均衡價格·不均衡的去來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그리고 <圖-1>에 있어 E 가 需要曲線 DD 의 中點이라고 하기로 한다. 그럴 때 超過



<圖 1>



<圖 2>

供給이 發生되어 貨幣供給 $\Sigma G'_{t+1} \equiv S_n^{t+1}$ 이 OPRQ 밖에 안될 때에는 不均衡價格은 OP 가 되고 不均衡의 去來量은 OPRQ 가 될 것이다. 그리고 超過需要가 發生되어 貨幣供給 $\Sigma G'_{t+1} \equiv S_n^{t+1}$ 이 OPQR 밖에 안될 때에는 不均衡價格은 OP 가 되고 不均衡의 去來量은 OPRQ 가 될 것이다(圖 2)). 이것은 나중에 보는 바와 같이 Clower의 見解와 一致된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均衡價格·均衡의 去來가 實現되는 경우에 있어서(OP/EQ') 最大의 貨幣供給을 要求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E 點에서 點彈力性이 1 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II. Ricardo 對 Malthus 論爭에 대한 Lange 의 見解

9. 以上 우리는 Walras 의 法則이 適用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經濟變動과 「原版 Say 의 法則」이 適用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經濟變動을 考察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즉 Walras 의 法則이 適用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經濟變動은 外部에 貨幣 stock 이 存在하며, 貨幣의 流入과 流出이 可能하므로 社會의 極大滿足이 實現되는 均衡價格·均衡의 去來가 成立될 수 있으며, 「均衡($t+1$ 期)→均衡($t+2$ 期)→均衡($t+3$ 期)」이라는 經濟變動의 軌跡을 그리는데 대해서, 「原版 Say 의 法則」이 適用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經濟變動은 外部에 貨幣 stock 이 存在하지 않으며, 따라서 貨幣의 流入·流出도 不可能하게 되며, 따라서 「不均衡($t+1$ 期)→不均衡($t+2$ 期)→不均衡($t+3$ 期)」와 같은 軌跡을 그리는 經濟變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立場에 立脚해서, Lange 가 問題삼았던 Ricardo 對 Malthus 의 論爭을 檢討해 보기로 하자.

Ricardo 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生産物은 항상 生産物 또는 用役(services)에 의해서 購買된다. 貨幣는 단순히 交換이 行해지기 위한 媒介物에 지나지 않게 된다. 어떤 特定의 商品이 너무도 過多하게 生産되어, 거기에 投下된 資本을 補償할 수 없을 만큼의 超過供給이 市場에서 發生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商品의 경우에 있어 發生되는 것은 아니다.」⁽⁹⁾

以上에 引用한 Ricardo 의 文章을 數式化한 것이 Lange 의 所謂 Say 의 法則, 즉 우리가 말하는 「原版 Say 의 法則」이다. 즉 223에서 본

(9) D. Ricard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Everyman's Library*, p. 194.

$$\sum_{i=1}^{n-1} P_i D_i \equiv \sum_{i=1}^{n-1} P_i S_i \quad (\Delta M \equiv D_n - S_n \equiv 0)$$

이다. 그런데, Lange 는 이 Ricardo 가 主張한 「原版 Say 의 法則」을 다음과 같이 變形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商品을 要素 · 中間生産物 · 最終生産物 · 直接的 用役의 4 個部類로 區分하고, 이것을 各各 F · I · P · C 라고 表示하고 있다⁽¹⁰⁾. 但 中間生産物을 다시 또 再投資用中間生産物 IR 과 新投資用中間生産物 IN 의 둘로 細分하고 있다. 그리고, 222에 있어서와 꼭 같이, 貨幣의 需要 · 供給을 D_n , S_n 이라고 하고 있다. 그럴 때에는 다음 恒等式이 成立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sum_{i=1}^n P_i D_i \equiv D_F + D_{IR} + D_{IN} + D_P + D_C + D_n$$

$$\sum_{i=1}^n P_i S_i \equiv S_F + S_I + S_P + S_C + S_n$$

그런데, Walras 의 法則에 따라

$$\begin{aligned} (D_F + D_{IR}) + D_{IN} + D_P + D_C + \Delta M \\ \equiv S_F + (S_I + S_P) + S_C, \quad \text{但 } \Delta M \equiv D_n - S_n. \end{aligned} \quad (A)$$

가 된다는 것이다.

Π 를 計劃總利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生産物($S_I + S_P$)의 價値로부터 要素($D_F + D_{IR}$)의 價値를 控除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Pi = (S_I + S_P) - (D_F + D_{IR}) \quad (B)$$

그런데, (A)는 (B)를 利用해서 (C)로 바꾸어 쓸 수가 있을 것이다.

$$(\Pi - D_{IN}) - (D_P - S_F) \equiv \Delta M - \Delta C, \quad \text{但 } \Delta C \equiv S_C - D_C \quad (C)$$

(C)의 左邊의 第1項은 「企業에서 要求하는 貨幣純額」(net stream of money demanded by entrepreneurs)을 表示하고 있고, 第2項은 「企業에게 供給되는 貨幣純額」(net stream of money offered to entrepreneurs)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左邊의 이들 計劃은 「資本主義的 決意」(capitalistic sphere of decisions)이라는 것이다. ΔC 는 直接用役의 純供給

(10) O. Lange, "Say's Law, A Restatement and Criticism," *Studies in Mathematical Economics and Econometrics; in Memory of Schultz*, 1942, p. 54.

을 表示하고 있는데, 이것은 企業家하고는 相關이 없으므로, 「非資本主義的 決意」(non capitalistic sphere of decisions)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ΔC 가 비록 「非資本主義的인 것」이기는 하나 ΔM 즉 「貨幣殘高」(cash balance)에 대한 需要가 「資本主義的인 것」이기 때문에, $\Delta M - \Delta C$ 는 「資本主義的인 것」이 되고, 따라서 $\Delta M - \Delta C = 0$ 은 「資本主義的 雰圍氣」속에 發生되는 「貨幣的 均衡」이 된다고 Lange는 말하고 있다.

10. $(D_P - S_F) = (I - D_{IN})$ 일 때, 즉 企業에게 供給되는 貨幣純額이 企業에서 要求하는 貨幣純額과 같을 때, 計劃總利潤과 新投資는 實現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D_P - S_F) < (I - D_{IN})$ 일 때, 즉 企業에게 供給되는 貨幣純額이 企業에서 要求하는 貨幣純額보다 작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그럴 때에는 新投資需要 즉 D_{IN} 이 一定하다고 할 때 實現利潤이 計劃利潤보다 적어지게 될 것이다. 反對로 $(D_P - S_F) > (I - D_{IN})$ 일 때, 즉 企業에게 供給되는 貨幣純額이 企業에서 要求하는 貨幣純額보다 클 때에는 實現利潤이 計劃利潤을 上廻하게 될 것이다.

즉 $(D_P - S_F) \equiv (I - D_{IN})$ 또는 $\Delta M - \Delta C \equiv 0$ 에 따라서, 新投資需要 D_{IN} 가 一定하다고 할 때, 實現利潤은 計劃利潤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注意해야 할 것은 企業에서 要求하고 있는 新投資需要를 充足시키고, 實現利潤이 計劃利潤과 같아지는 貨幣的 均衡 $\Delta M - \Delta C = 0$ 이 이루어지는 것은 「資本主義的 雰圍氣下」에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原版 Say의 法則 $\Delta M \equiv 0$ 」이 成立될 수 있는 것은 「純資本主義的 制度」(a purely capitalistic system)에서만이라고 Lange는 말하고 있다⁽¹¹⁾. 즉 「原版 Say의 法則」이 成立될 수 있는 「純資本主義制度」下에서는 非資本主義的인 ΔC 가 消失되고 $\Delta M \equiv 0$ 가 成立된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D_P - S_F) \equiv (I - D_{IN}) \quad (D)$$

이 成立된다는 것이다.

(D)는 企業에게 供給되는 貨幣純額은 항상 企業에서 要求하는 貨幣純額과 같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 또 (D)는 企業에게 供給되는 貨幣純額은 個別商品의 需要量·供給量의 均衡과 關係없이 總體的으로는 항상 計劃利潤과 新投資를 實現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 이것은 또 「原版 Say의 法則」에 있어서는 總企業收入이 항상 總企業費用 플러스 計劃總利潤과 같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도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部門에 있어 計劃利潤이

(11) *Ibid.*, p. 56.

成立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其他部門에 있어 計劃利潤以上이 實現되고 있다는 말이 되며, 바로 이러한 意味에 있어 部分的 過剩生産이 成立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리하여 Say의 法則은 純粹資本主義下에서만 一般的 過剩生産(universal glut)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¹²⁾.

11. 그런데, Lange 는 「原版 Say 의 法則」은 「最終生産物의 總需要가 最終生産物의 總供給과 항상 같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고, 또 「要素와 直接的 用役의 總需要가 要素와 直接的 用役의 總供給과 항상 같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고, 「原版 Say 의 法則」은 「要素와 直接的 用役의 超過供給은 항상 最終生産物의 超過需要와 같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

$$(S_F + S_C) - (D_F + D_C) \equiv (D_{IR} + D_{IN} + D_P) - (S_I + S_P) \quad (E)$$

물론 (E)가 成立하는 것은 $M \equiv 0$ 가 成立되는 「純資本主義」下에서라고 Lange 는 말하고 있다. 그런데, 또 Lange 는 「 $\Delta M = 0$ 가 成立되는 貨幣的 均衡下에서는 要素의 超過供給은 꼭같은 크기의 最終生産物의 超過需要를 表示하고 있다. 反對의 경우도 成立된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런데, 「原版 Say 의 法則」즉 $\Delta M \equiv 0$ 이 適用되는 경우 不均衡의 去來・不均衡價格은 自動的으로 修正되어서 均衡의 去來・均衡價格이 實現되게 된다고 다음과 같이 Lange 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直接的으로 均衡을 回復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最終生産物의 超過需要는 最終生産物의 價格을 上昇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最終生産物의 需要減少와 供給增加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最終生産物의 需要減少는 要素와 直接的 用役의 供給減少와 같은 것이 되고, 最終生産物의 供給增加는 要素와 直接的 用役에 대한 需要增加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最終生産物의 需要와 供給의 均衡, 要素와 直接的 用役의 需要와 供給의 均衡은 自動的으로 回復되게 된다. 最終生産物의 超過供給의 경우에 있어서도 꼭같이 해서 均衡은 回復될 수 있게 된다.」⁽¹⁴⁾

以上은 Ricardo 의 部分的 過剩生産理論을 Lange 가 그 나름대로 說明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그런데 Lange 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原版 Say 의 法則」이 成立될 수 없을 때에는, 要素와 直接的 用役의 超過供給은 반드시 最終生産物에 對한 超過需要와 關聯지을 必要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12) *Ibid.*, p. 57.

(13) *Ibid.*, p. 57.

(14) *Ibid.*, p. 58.

(A)로부터

$$\begin{aligned} & (S_F + S_C) - (D_F + D_C) \\ & \equiv (D_{IR} + D_{IN} + D_P) - (S_I + S_P) + \Delta M \end{aligned} \quad (F)$$

가 誘導된다. (F)로부터 우리는 最終生産物의 超過供給은 要素와 直接的 用役의 超過供給과 併存할 수 있다는 것을 結論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但 그러한 併存은

$$\Delta M > (S_I + S_P) - (D_{IR} + D_{IN} + D_P) > 0$$

$$\Delta M > (S_F + S_C) - (D_F + D_C) > 0$$

이 成立될 수 있는 경우에 限한다는 것이다. 즉 最終生産物의 超過供給보다도 더 크고, 또 要素와 直接的 用役의 超過供給보다도 더 큰 貨幣殘高에 對한 需要가 있을 경우에는 最終生産物의 超過供給과 要素와 直接的 用役의 併存 즉 一般的 過剩生産이 成立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에 Lange 는 여기서 Ricardo 對 Malthus 의 論爭을 追跡檢討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Lange 는 Malthus 의 다음 文章을 引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商品과 商品이 交換된다는 것은 사실 眞實이 아니다. 大多數의 商品은 直接的으로 生産的 勞動 또는 不生産的 勞動과 交換된다(the great mass of commodities is exchanged directly for labour, either productive or unproductive). 그리고, 勞動과 交換되는 多數商品의 價値가 過剩生産으로 因해서 下落되는 것은 하나의 商品의 價値가 勞動 또는 貨幣와 比較해서 超過供給 때문에 下落되는 것과 같다.」 Lange 에 依하면, 이 Malthus 의 文章에 있어서의 「商品」을 「最終生産物」로, 「勞動」을 「要素와 直接的 用役」으로 代替하면, 以上の Malthus 의 命題는 $\Delta M=0$ 의 경우의 (F)가 된다는 것이다. Lange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F)($\Delta M=0$)는 最終生産物은 最終生産物과 交換된다는 것을 意味할 뿐만 아니라, 最終生産物이 要素와 直接的 用役과도 交換된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最終生産物의 一般的 超過供給(general excess supply of products)이 發生됨으로써 要素와 直接的 用役의 價格에 比較한 最終生産物의 價格下落이 發生된다. 이 Malthus 의 見解는 完全히 옳다. 왜냐하면 이 條件下에서는 最終生産物의 超過供給은 要素와 直接的 用役에 대한 超過需要를 意味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Malthus는 이 옳은 論理를 指摘함으로써 一般的 過剩生産의 可能性을 事後的으로 證明했다.」⁽¹⁵⁾ Lange 에 依하면, 最終生産物의 超過供給의 結果는 「商品」(最終生産物)의 價格이 超過需要의 「勞動」(要素와 直接的 用役)의 價格보다 必然的으로 下落해서 利潤을 零으로 만드는 데까지 下落시켜 한동안 生産을 不可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15) *Ibid.*, pp. 59-60.

여기서 우리는 「原版 Say의 法則」 즉 Ricardo의 理論에 立脚해서 Malthus의 一般的 過剩生産理論이 說明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Malthus는 最終生産物의 超過供給과 더불어 要素와 直接的 用役의 超過供給까지도 主張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이미 본 바와 같이, 貨幣的 均衡의 缺如(absence of monetary equilibrium) 즉 貨幣殘高增加意慾(desire to increase cash balance)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즉 Malthus의 一般的 過剩生産理論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F) ($\Delta M=0$)가 成立되어서는 안되고, (F)가 成立되어야 하며, 또 $\Delta M > (S_I + S_P) - (D_{IR} + D_{IN} + D_P) > 0$, $\Delta M > (S_F + S_C) - (D_F + D_C) > 0$ 이 保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3. 以上 우리는 Lange에 의해서 說明된 「原版 Say의 法則」(즉 Ricardo의 部分的 過剩生産理論)과 그의 「變形」 또는 「否定」으로서의 Malthus의 一般的 過剩生産理論을 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그에 대한 우리의 見解를 밝혀보기로 하자.

Lange가 說明한 「原版 Say의 法則」(Ricardo의 部分的 過剩生産理論)은 2個의 核心事項으로 要約할 수가 있을 줄 생각한다. 하나는, (E)에 있어, 要素와 直接的 用役의 超過供給은 항상 最終生産物의 超過需要와 같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長期的인 見地에서 볼 때, 不均衡의 去來·不均衡價格은 均衡의 去來·均衡價格으로 移行되게 된다는 것이다.

① 우선 理論展開의 出發點인 (A)에 있어 이미 言及한 바 있는 다음과 같은 理論的 不齊合이 存在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指摘하고자 한다. (A)의 左邊은 (t+1)期에 屬하고 있는데 대해서 右邊은 t期에 屬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그러므로, 이 理論的 不齊合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이미 言及한 바 있는 것 같이, 우리는 (A)의 右邊도 (t+1)期에 屬한다고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물론 $\Delta M = D_n(t期) - S_n(t+1期)$ 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前提 위에서 「原版 Say의 法則」(Ricardo의 部分的 過剩生産理論)을 取扱해 보기로 하자. 그럴 때에는 다음과 같은 立言이 成立될 수가 있을 줄 안다. 처음에는 「要素·直接的 用役의 超過供給 ≡ 最終生産物의 超過需要」가 發生됨으로써 不均衡의 去來·不均衡價格이 成立되더라도, 長期的으로는 均衡의 去來·均衡價格으로 移行된다는 見解는 外部에 貨幣 stock이 存在한다는 前提가 있어야 하므로, 이것은 「原版 Say의 法則」이 適用되는 世界가 아니라, Walras의 法則이 適用되는 世界가 되어야 한다는 理論이 展開될 수 있게 된다. 즉 前記한 바 있는 「原版 Say의 法則」(Ricardo의 部分的 過剩生産理論)의 2個의 核心事項은 事實은 固有의 Say의 法則과 矛盾되는 事項이며, 實際에 있어서는 Walras의 法則에 屬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그런데, 嚴密한 意味에 있어서의 「原版 Say의 法則」(Ricardo의 部分的 過剩生産理

論)이 成立된다고 할 때, 즉 外部에 貨幣 stock 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할 때, 「要素·直接的 用役의 超過供給=最終生産物의 超過需要」가 成立되므로 部分的 過剩生産이 發生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Lange 의 「原版 Say 의 法則」(Ricardo 의 部分的 過剩生産理論)은 이 限에 있어서의 옳다고 할 수 있다. 但 「要素·直接的 用役의 超過供給=最終生産物의 超過需要」에 의한 部分的 過剩生産은 不均衡價格·不均衡的 去來가 行해지는 狀態에 있어, 그리고 그것이 Ricardo 가 말하고 있는 것같이 均衡價格·均衡的 去來로 移行되지를 않는다는 前提下에서, 그리고 또 「不均衡($t+1$ 期)→不均衡($t+2$ 期)→不均衡($t+3$ 期)」라는 經濟變動過程에서 發生된다는 것을 強調해 두고자 한다.

④ Lange 또는 Ricardo 가 말하는 「均衡的 回復」(to restore equilibrium)에 있어서의 「均衡」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問題로 삼아 보기로 하자. 이 경우 「均衡」은 두 가지로 解釋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㉑ 우리가 이미 關說한 바 있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거기서는 「代替費用」이 適用된다).」 이를테면, Böhm-Bawerk 의 價格理論에 있어서의 需要曲線과 供給曲線(代替費用曲線)의 交叉點에서 成立되는 「均衡」(174 의 <圖 1-24>)과 ㉒ Ricardo 에 있어서의 「自然價格」 또는 Marx 에 있어서의 「生産價格」이다. ㉑는 限界効用價值論에 立脚하고 있으며, 需要曲線과 供給曲線(代替費用曲線)의 交叉點에서 均衡的 去來가 行해지고 있는 均衡價格이 「均衡」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㉒는 投下勞動價值論에 立脚하고 있으며, 「價值」 또는 「自然價格」乃至는 「生産價格」이 「均衡」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㉑에 있어서의 不均衡的 去來가 行해지고 있는 不均衡價格이 「不均衡」인데 대해서 ㉒는 「價值」 또는 「自然價格」乃至는 「生産價格」으로부터 逸脫된 「市場價格」이 「不均衡」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또 ㉑에 있어서의 均衡價格에 있어서도, 179에서 이미 言及해 놓은 바 있는 것같이, 前資本主義的 不等價交換이 行해지고 있는데 대해서, ㉒에 있어서의 「均衡」에 있어서의 原則적으로 等價交換이, 「不均衡」에 있어서의 原則적으로 不等價交換이 行해지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 恐慌論에 價值論이 介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Ricardo·Marx 에 있어서의 部分的 過剩生産理論이 長期的인 均衡理論으로 結局 落着되고 마는 것은 그들이 投下勞動價值論=等價交換의 理論에 立脚하고 있는 當然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言及하겠지만 Marx 의 投下勞動價值論=等價交換의 理論은 「原版 Say 의 法則」을 成立시킬 수 있는 根據가 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것은 自己自身을 明示하기 위해서는 항상 「原版 Say 의 法則」을 要求하고 있으며, 單純商品生産 $W-G-W'$ 이든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이든 物物交換 $W-W'$ 으로 一旦 還元시켜 놓아야 된다는

緊迫性を 갖고 있다. 즉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等價交換의 理論은 先天的으로 「原版 Say의 法則」을 必要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眞正한 價格理論은, 우리가 이미 提示해 놓은 바와 같이,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D=D(P)$, $S=S(P)$, $D(P)=S(P)$) (供給曲線은 代替費用曲線이 된다)인데, 여기서 適用될 수 있는 價值論은 限界効用價值論이다. 물론 ㉔가 옳고, ㉕는 옳지 못하다.

㉖ Lange는 (A)로부터 (B)를 誘導해 내고 있다. 그리하여 Lange는 (A)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되는 恒等式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Lange가 重要한 理論的 誤謬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B)의 右邊을 바꾸어 쓰면, $(S_I - D_{IR}) + (S_P - D_F)$ 가 되는데, 單純商品生産 $W-G-W'$ 을 前提로 하고 있는 限, 그리고 「原版 Say의 法則」이 適用되고 있다고 한다면, 즉 外部에 貨幣 stock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假定하는 限, $S_I - D_{IR} \leq 0$, $S_P - D_F \leq 0$, $(S_I - D_{IR}) + (S_P - D_F) \leq 0$ 가 되며, 그 以上도 그 以下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II = (S_I + S_P) - (D_F + D_{IR})$ 가 成立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C), (D)가 成立될 수 없으며, 그로부터 誘導되는 部分的 過剩生産理論全體가 成立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Lange는 여기서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A)를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되는 것으로 曲解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해 두기로 한다.

㉗ 따라서 「原版 Say의 法則」이 「純資本主義制度下」에서 成立된다는 그의 理論도 옳지 못하다.

㉘ 마지막으로 Lange는 Ricardo의 部分的 過剩生産理論에 對立되는 Malthus의 理論 「商品은 勞動 또는 貨幣와 交換된다」는 것을 取扱하고 있다. 먼저 이에 關한 私見을 披瀝해 보면, Ricardo가 取하고 있는 「原版 Say의 法則」 즉 「商品은 商品과 交換된다」 $\sum_{i=1}^{n-1} P_i D_i \equiv \sum_{i=1}^{n-1} P_i S_i (\Delta M \equiv 0)$ 가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고 있는데 대해서, Malthus의 理論 「商品은 勞動 또는 貨幣와 交換된다」라는 것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商品」 W' 를 購買하는 것은 「勞動」 「貨幣」 A 의 賃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Malthus의 理論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A 가 W' 를 購買하면 結局 利潤額相當만큼의 一般的 過剩生産이 發生하게 된다. 이리하여 Malthus에 의하면 結局 利潤이 一般的 過剩生産의 原因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바꾸어 말하면 支配勞動價值論이 眞正한 一般的 過剩生産理論의 基礎理論이 되고 있다는 말도 될 것이다. 그런데, Lange는 「原版 Say의 法則」의 「하나의 特殊한 경우」, 즉 「 $\Delta M = 0$ 의 경우」의

(F)가 Malthus의 理論이 된다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그리하여, Lange는 最終生産物(商品)의 超過供給이 發生됨으로써 超過需要된 要素(勞動)의 價格에 比較한 最終生産物(商品)의 價格下落이 發生된다는 것은 Malthus의 一般的 過剩生産理論의 「可能性」을 「事後的」으로 證明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⁶⁾ 最終生産物(商品)의 「超過供給」은 最終生産物의 「價格下落」을, 그리고 要素(勞動)의 「超過需要」는 要素의 「價格上昇」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Malthus의 一般的 過剩生産理論의 內容과 一致된다고 Lange는 말하고 있다. 一般的 過剩生産의 「可能性」을 超過供給된 商品의 「價格下落」과 超過需要된 商品의 「價格上昇」과의 比較에 의해서 「事後的」으로 보려는 Lange의 이 見解는 完全히 옳지 못하다. 여기서 Lange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_m}{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 Malthus의 一般的 過剩生産理論을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Ricardo의 「原版 Say의 法則」의 「하나의 特殊한 境遇($\Delta M=0$)」로서 無理하게 縮小解釋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곧 이어 Lange는 眞正한 Malthus의 一般的 過剩生産理論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最終生産物의 「超過供給」과 더불어 要素와 直接的 用役의 「超過供給」도 同時에 成立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Delta M > 0$ 가 成立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즉 Malthus의 理論과 Ricardo의 Say의 法則과는 二律背反의 關係에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Lange의 所謂 「Malthus의 一般的 過剩生産理論($\Delta M > 0$)」은 原理적으로 Ricardo의 「原版 Say의 法則」($\Delta M=0$)에 立脚하고 있는 部分的 過剩生産理論으로부터 區別 지워질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Lange의 所謂 「Malthus의 一般的 過剩生産理論($\Delta M > 0$)」은 옳다고 할 수 있는가. 條件附屬 옳다고 해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는 t 期의 貨幣需要 $\sum G_t \equiv D_n$ 로부터 大幅 幣貨가 外部로 流出됨으로써 $t+1$ 期의 貨幣供給 $\sum G'_{t+1} = S_n^{t+1}$ 이 少量이 됨으로써 $t+1$ 期의 市場에 있어 發生되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_m}{A}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가 아닌) 一般的 過剩生産現象을 認定하는 셈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各 商品市場이 모두 8의 <圖 1>이 되는).

III. Clower·Sowell에 있어서의 Walras의 法則과 Scry의 法則

14. 다음에는 Clower에 있어서의 Walras 法則과 Say의 法則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해서 言及해 보기로 하자. 그가 쓴 論文 『케인지언의 反革命』을 통해서 檢討해 보기로 한다,

(16) *Ibid.*, p. 60.

우선 Clower는 家計와 企業의 二部門經濟라는 模型을 作成해 놓는다. 그리고 企業이 供給하고 需要하는 商品과 家計가 供給하고 需要하는 商品을 分類하여, 企業에 의해서 供給되는 商品과 需要되는 商品을 $S_1, \dots, S_m; d_{m+1}, \dots, d_n$ 이라고 表示하고, 다음에 家計에 의해서 需要되는 商品과 供給되는 商品을 $d_1, \dots, d_m; S_{m+1}, \dots, S_n$ 이라고 表示하고 있다. 그리고 商品 n 單位의 市場價格을 $P_1, P_2, \dots, P_{n-1} (P_n \equiv 1)$ 이라고 또 表示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sum_i^m P_i \bar{d}_i - \sum_j^n P_j \bar{S}_j - r = 0 \tag{A}$$

$$\sum_i^m P_i \bar{S}_i - \sum_j^n P_j \bar{d}_j - r = 0 \tag{B}$$

이라는 2個의 方程式을 設定하고 있다. 但 r 는 利潤, \bar{d}, \bar{S}, r 는 需要·供給·利潤의 計劃值(均衡值)을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 (A)로부터 (B)를 빼면

$$\sum_{k=1}^n P_k [\bar{d}_k - \bar{S}_k] \equiv r - r \tag{C}$$

가 얻어지게 된다. 一擧에 $r \equiv r$ 라고는 할 수 없지만 $r = r$ 가 成立된다고는 볼 수 있으므로, (C)로부터 (D)가 誘導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¹⁷⁾

$$\sum_{k=1}^n P_k [\bar{d}_k(P) - \bar{S}_k(P)] \equiv 0 \tag{D}$$

Clower는 (D)를 Walras의 法則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Clower는 Lange가 Walras의 法則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Say의 法則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形式的인 觀點에서는 그 두 가지는 同一한 것」(from a formal point of view, the two propositions are equivalent) 이라고 註에서 말하고 있는데,⁽¹⁸⁾ 이것은 나중에 다시 問題삼을 心算이다.

그리고 Clower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Walras의 法則을

$$\sum_{k=1}^n P_k \bar{S}_k \equiv \sum_{k=1}^n P_k \bar{d}_k \tag{이것을 우리는 (E)라고 해 두기로 하자.}$$

의 形態로 바꾸어 쓰게 되면, 그것은 <供給은 그 自體의 需要를 만들어 낸다>는 主張이 되지만, 以下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그 以上の 主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¹⁹⁾

다음에 Clower는 다음과 같은 極히 重要的 立言을 設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正統 經濟學이 解明해 주고 있는 것은 均衡狀態에 관한 一般理論(a general theory of equilibrium

(17) R. Clower, "The Keynesian, Counterrevolution", *The Theory of Interest Rates*, 1965, p. 107.

(18) *Ibid.*, footnote 2.

(19) *Ibid.*, p. 108.

states) 즉 市場經濟에 있어서의 均衡價格과 均衡의 去來計劃(equilibrium prices and equilibrium transaction plans)을 決定하는 諸要因을 考慮하고 있는 理論이라고 斷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分析은 또 不均衡價格과 不均衡의 去來計劃(disequilibrium prices and disequilibrium transaction plans)에 관한 理論의 出發點을 準備해 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正統的 分析은 不均衡狀態의 一般理論(a general theory of disequilibrium states)을 準備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正統的 分析은 不均衡狀態에 있어서의 計劃去來量이 아닌 實現去來量에 관한 아무런 直接的 情報도 주지 않고 있으며, 둘째로 正統的 分析에 暗暗裡에 前提되고 있는 것은 支配的 市場價格을 變更시키려고 하는 힘이 그 瞬間에 있어서의 實現去來量과는 아무런 關係도 갖지 않게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特殊한 경우로서의 不均衡의 去來도 發生되지 않는다는 假定을 包含하고 있다).⁽²⁰⁾ 즉 여기서 Clower 는 「均衡價格」과 「均衡的 去來」를 取扱하는 「均衡狀態의 一般理論」으로서의 「正統的 經濟學」과 「不均衡價格」과 「不均衡의 去來」를 取扱하는 「不均衡狀態의 一般理論」을 峻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Clower 는 「不均衡狀態의 一般理論」과 Keynes 理論을 結付시키려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와 같이, Keynes 도 決코 正統的 均衡分析의 一般性을 否認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그가 否認하고 있는 것은 正統經濟學이 不均衡現象에 관한 充分한 說明을 提供하고 있다고 하는 것 뿐이다.」

15. 다음에 Clower 는 「不均衡狀態의 力學」(the mechanics of disequilibrium)에 관해서 좀 더 言及해야 되겠다고 하고, 傳統的 價格理論 즉 一般均衡模型의 需要函數 또는 供給函數 속에 「所得量」(magnitude of income)이 獨立變數로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²¹⁾ Clower 는 또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本質的인 問題는 不均衡의 去來를 無視할 수 없는 環境 밑에서, 傳統的 分析의 需要·供給函數가 市場價格 形成과 聯關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하는 問題이다.」 그리고 나서 Clower 는 「所得量」을 獨立變數로 插入한 然後에 不均衡價格·不均衡의 去來가 어떻게 實現되는가 하는 極히 重要한 事項을 다음과 같이 披瀝하고 있다. 「現實의 去來는 항상 <市場의 不足>(the short side of market)에 의해서 支配되고 있다. 市場去來(market transactions)는 需要가 供給을 上廻하고 있을 경우에는, 計劃市場供給(planned market supply)과 같고, 供給이 需要를 上廻하고 있거나 또는 같을 경우에는, 計劃市場需要(planned market demand)와 같아지게 된

(20) *Ibid.*, p. 108.

(21) *Ibid.*, pp. 111-112.

다.]⁽²²⁾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獲得해 놓은 結論과 같다(8 參照). 다만 한가지 Clower 에 있어서는 均衡價格×均衡의 去來量 즉 $\sum_j^{n-1} P_j S_j(t+1)$ 期가 最大의 貨幣供給을 要求하고 있다는 것을 明示하는 것이 疏忽히 되고 있다.

그리고 Clower 는 또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現在의 去來를 一般均衡理論 가운데에 끄집어 넣는 有力한 方法은 stock-flow模型을 使用하는 것이다. 經濟에 있어 去來되고 있는 全商品이 消滅되기 쉬운 것이 아닌 以上 市場不均衡(market disequilibrium) 期間동안, 經濟體系의 어딘가에서 財貨의 蓄積 또는 在庫減少(accumulate or decumulate)가 發生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傳統理論으로 하여금 資產保有現象에 관한 追加檢討를 하게 만들 것이다.」 「資產保有現象을 傳統的 理論 가운데에 導入하는 것은 市場의 超過需要函數 속에 價格과 더불어 資產을 獨立變數로 包含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²³⁾

16. 다음에 Clower 는 「豫算制約」(budget constraint)

$$\sum_i^m P_i d_i - \sum_j^n P_j S_j - r = 0 \quad (F)$$

을 設定하고 있다. 그리고 이 「豫算制約」(F)을 그는 「Say의 原理」(Say's Principle)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하여 Clower 는 「實現된 現在所得」(realized current income) $\sum_j^n P_j S_j$ 을 「觀念的 現在所得」(notional current income) $\sum_j^n P_j \bar{S}_j$ 과 比較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① 만약 「實現된 現在所得」이 「觀念的 現在所得」보다도 작지가 않다고 하면 즉,

$$\sum_j^n P_j S_j \geq \sum_j^n P_j \bar{S}_j$$

이 成立되고 있다고 한다면, 均衡價格·均衡의 去來가 實現되게 될 것이며, ② 反對로 「實現된 現在所得」이 「觀念的 現在所得」보다 더 작다고 한다면 즉,

$$\sum_j^n P_j S_j < \sum_j^n P_j \bar{S}_j$$

이 成立된다고 하면 「制約된 需要函數」(constrained demand function)

$$\hat{d}_i(P, Y) \quad (i=1, 2, \dots, m)$$

가 成立되며 이 경우에는 不均衡價格·不均衡의 去來가 實現된다고 하고 있다. ①, ②를 Clower 는 「二重決定假說」(the dual decision hypothesis)이라고 부르고 있다.⁽²⁴⁾

그러면 「二重決定假說」은, 그에 의해서, 어떻게 適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한다.

①은 外部에 貨幣 stock 이 存在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完全雇傭狀態」가 實現된다고

(22) *Ibid.*, p. 113.

(23) *Ibid.*, p. 115.

(24) *Ibid.*, p. 119.

Clower 는 말하고 있다. 한편 ②은 「非自發的 失業」(involuntary unemployment)과 「非自發的 過少消費」(involuntary underconsumption) 즉 「市場의 不足」이 發生될 경우에 實現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不完全雇傭狀態」가 發生된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우리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有效需要概念 즉 「市場의 不足」이 適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現在所得은 有效需要(effective demand)에 獨立인 制約을 加하게 된다.」⁽²⁵⁾

17. 이러한 理論的 作業을 끝마친 뒤 Clower 는 「古典學派로부터 Keynes 로」(from the classics to Keynes)의 理論的 移行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古典學派 즉 現代의 一般均衡理論에 있어서는 「二重決定假說」을 發見할 수가 없다고 Clower 는 말하고 있다. 즉 古典學派에 있어서는 貨幣 stock이 外部에 存在하고 있다는 前提 위에 立脚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獨立變數로서 價格만이 登場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Walras 의 法則이 成立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Walras 의 法則을 바꾸어 쓰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sum_i^m P_i [\bar{d}_i(P) - S_i(P)] + \sum_j^n P_j [\bar{d}_j(P) - S_j(P)] \equiv 0 \quad \left(\begin{array}{l} \text{이것을 우리는 (G)라} \\ \text{고 해 두기로 하자.} \end{array} \right)$$

Walras 의 法則의 가장 재미있는 含意는 商品 1, ..., m 를 <最終生産物>이라고 부르고, 商品 m+1, ..., n 를 <要素>라고 부른다면, 要素의 超過供給은 最終生産物의 同時인 超過需要를 隨伴한다는 것이다.⁽²⁶⁾

그러나 「二重決定假說」에 의하면, 家計의 函數 $\bar{d}_i(P)$, $S_j(P)$ 가 市場에 있어 妥當性을 가지려면, 즉 社會的으로 極大効用이 達成되기 위해서는, 「實現된 現在所得」이 「計劃所得」보다 작지 말아야 된다는 條件이 充足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이미 關說한 바와 같다. 이 條件이 充足되면 均衡價格·均衡的 去來가 實現됨으로써 完全雇傭이 實現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14에서 Walras 의 法則이 「供給이 그 自體의 需要를 만들어 낸다는 것」 이상의 主張」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Walras 의 法則이, 均衡價格·均衡的 去來가 實現되면, 完全雇傭狀態도 示顯된다는 바로 이 含意일 것이라고 생각한다(①의 경우).

그런데

$$\sum_j^n P_j [\bar{d}_j - S_j] < 0$$

가 成立된다고 하면 非自發的 失業(不完全雇傭狀態)이 發生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25) *Ibid.*, p. 120.

(26) *Ibid.*, p. 121.

$$\sum_i^m P_i \bar{d}_i(P) \geq \sum_i^m P_i d_i(P, Y) \tag{H}$$

가 또 成立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非自發的 過少消費」 「市場의 不足」으로 不均衡價格・不均衡的 去來가 成立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②의 경우).

그리하여 Walras의 法則은 ①②를 統合해서 다음과 같이 一般化될 수가 있다고 Clower는 말하고 있다.

$$\sum_i^m P_i [d_i(P, Y) - \bar{S}_i(P)] + \sum_j^n [\bar{d}_j(P) - \bar{S}_j(P)] \leq 0 \tag{I}$$

즉 貨幣 stock이 外部에 存在하여 均衡價格・均衡的 去來가 實現될 경우에는 (=0)가 成立되고(完全雇傭理論), 貨幣 stock이 外部에 存在하지 않음으로써 要素市場에서 不均衡價格・不均衡的 去來가 實現됨으로써 非自發的失業이 發生되면 「非自發的 過少消費」 「市場의 不足」을 가져와 生産物市場에 있어서도 不均衡價格・不均衡的 去來現象(超過供給現象)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0)이 成立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完全雇傭理論 (=0)는 古典派學을 表示하고 있고 (<0)는 Keynes經濟學을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low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Keynes革命과 傳統的 思考의 關係를 한마디로 表現한다면, Keynes經濟學은 現在去來(current transactions) (즉 不均衡的 去來…筆者)를 價格理論에 導入하고 있는데 대해서, 傳統的 分析은 이것을 明示的으로 考慮하지 않고 있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또는 Keynes經濟學은 Walras의 法則을 使用하지 않는 價格理論이며, Walras의 法則을 使用하는 價格理論은 Keynes經濟學의 特殊한 경우(a special case)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27)

18. 以上 우리는 Clower의 所謂 Walras의 法則이라는 것을 보아왔는데, 다음에는 그에 관한 우리의 見解를 밝혀보기로 하겠다.

먼저 Clower가 말하고 있는 Walras의 法則이라는 것에 대한 檢討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자. Clower는 「企業」과 「家計」 즉 「資本家」와 「勞動者」의 2經濟單位를 設定하고 또 資本家が 販賣하는 「最終生産物」과 勞動者가 販賣하는 「要素」(勞動力)을 規定한 다음에 最終生産物市場에서 賣買되는 1, 2, ..., m의 m個의 商品과 要素市場에서 賣買되는 m+1, m+2, ..., n의 (n-m)個의 都合 n個의 商品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A)(B)와 같은 賃金費用도 利潤도 表示되고 있는 費本主義的 定式을 誘導해 내고 있다. 다음에 그는 그 資本主義的 定式으로부터 Walras의 法則 (D) 또는 (E)를 誘導해 내고 있다. 그리하여 Clower에 있어서의 Walras의 法則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

(27) *Ibid.*, p. 124.

되는 것으로 되고 있다. 여기서 (A) 또는 (B)를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① 우선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_m}{A} \dots P \dots W'-G'$ 을 前提로 하고 있다는 것, ② $\sum_i^m P_i d_i = W \left(\sum_i^m P_i S_i = W \right)$, $r=M$, $\sum_i^n P_i S_i = V \left(\sum_i^n P_i d_i = V \right)$ 라고 하면 C가 빠지고 있다는 것, ③ 그리고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A) 또는 (B)가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만 成立되는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으로부터 誘導되었다는 것,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_m}{A} \dots P \dots W'-G'$ 을 前提로 한다면

$$\sum_i^m P Q_i - \sum_i^m K_i Q_i - r = 0 \quad (\text{但 } Q, K \text{ 는 數量과 平均費用을 表示하고 있음})$$

와 같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Clower의 所謂 Walras의 法則은 元來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어야 할 것을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_m}{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되는 것으로 牢強附會되고 있으므로 理論적으로 誤謬를 犯하고 있다고 斷定을 내리코자 한다. 이것도 結局 Clower가 單純商品生産 $W-G-W'$ 과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_m}{A} \dots P \dots W'-G'$ 을 區分할 수 있는 歷史的 展望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起因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Clower의 所謂 Walras의 法則이, 그가 前提한대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_m}{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되지 않고, 우리의 見解대로,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것으로 하고 前進하기로 한다.

19. 둘째로 Clower의 所謂 Walras의 法則이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된다고 할 때, (D) 또는 (E)에 numéraire 즉 貨幣가 包含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檢討해 보아야 되겠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P_n=1$ 라고 되고 있으므로 n 個의 商品가운데의 1 個는 numéraire 즉 貨幣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D) 또는 (E)는 Lange가 規定한 Walras의 法則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대신 商品數는 $n-1$ 가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D) 또는 (E)가 $t+1$ 期의 市場에서 成立된다고 해 두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Clower의 所謂 Walras의 法則은 Lange가 規定한 Walras의 法則과 同一한 것이 됨으로써 均衡價格·均衡의 去來가 實現될 수 있는 「均衡狀態에 관한 一般理論」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外部에 貨幣 stock이 存在해야 된다는 것은 더 說明할 必要도 없다. 그리고 Clower에 의하면, 이 Walras의 法則은 또한 完全雇傭理論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以上の 主張」(14)이라는 것은 前記한 바와 같다. 여기서 또 한번 우리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Walras의 法則을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_m}{A} \dots P \dots W'-G'$ 에 惡適用시키고 있는 事例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 다음에 不均衡價格·不均衡的 去來를 거기에 導入하고 있다. 즉 「Say의 原理」 즉 「豫算制約」과 「二重決定假說」이다. 不均衡價格·不均衡的 去來를 成立시키기 위해서는 外部에 貨幣 stock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要求되는 데, 그것을 Clower는 「豫算制約」 즉 「Say의 原理」와 「二重決定假說」 등을 動員시켜서 達成하고 있다. 즉 Lange의 경우에 있어서, 그냥 貨幣의 流出·流入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대해서, Clower의 경우에 있어서, 奇異하게도 Say의 法則을 Keynes의 「非自發的失業」(不完全雇傭)概念과 結付시켜 가지고 다음에 거기서부터 「非自發的 過少消費」「市場의 不足」을 誘導해 내고 그리하여 不均衡價格·不均衡的 去來를 誘導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Walras의 法則에 있어서, 部分的 過剩生産이 成立될 수 없게끔 되고 있다.

그리하여 Clower에 의하면 (I)가 Keynes經濟學이며, Walras의 法則(G) 즉 完全雇傭理論은 (I)의 部分理論 즉 Keynes經濟學의 部分理論이 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奇異한 理論展開인가. Clower에 의하면 Keynes는 Say의 法則을 排擊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Say의 法則(「Say의 原理」)에 依持해서 完全雇傭理論인 Walras의 法則을 自己體系內에 吸收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Clower가 말한대로의 理論이 展開되려면, Clower가 展開한 理論에 若干의 修正이 加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D) 또는 (E)에는 numéraire 즉 貨幣가 包含되고 있으므로 修正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G), (I)의 左邊은 要素와 最終生産만의 市場이 되어야 하고 numéraire 즉 貨幣는 包含되어서는 안되므로, (G), (I)는 다음과 같이 修正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sum_i^m P_i [\bar{d}_i(P) - \bar{S}_i(P)] + \sum_j^{n-1} P_j [\bar{d}_j(P) - \bar{S}_j(P)] = 0 \tag{G}'$$

$$\sum_i^m P_i [\bar{d}_i(P, Y) - \bar{S}_i(P)] + \sum_j^{n-1} P_j [\bar{d}_j(P) - \bar{S}_j(P)] \leq 0 \tag{I}'$$

즉 (G)의 ($\equiv 0$)는 (G)의 ($= 0$)로 바뀌어져야 되고, 다음에는 (G), (I)의 $\sum_j^m (P_j [\bar{d}_j(P) - \bar{S}_j(P)])$ 는 $\sum_j^{n-1} P_j [\bar{d}_j(P) - \bar{S}_j(P)]$ 으로 바꾸어 表示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G), (I)의 左邊은 numéraire 즉 貨幣를 包含한 商品 n個의 市場이어서는 안되고 numéraire 즉 貨幣를 除外한 (n-1)個의 商品市場만을 表示해야 되고, 또 (G)'는 Walras의 法則이 適用되는 世界 즉 外部에 貨幣 stock이 存在하며 따라서 均衡價格·均衡的 去來가 이루어지는 狀態이어야 하므로 恒等式이 아니라 均等式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Clower의 理論을 總體的으로 批評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되는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을 單純

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으로 說明하려고 한 結果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되는 完全 雇傭理論은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均衡價格·均衡的 去來가 實現되고 있는 「均衡狀態의 一般理論(Walras의 法則)」이 되었고,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되는 Keynes의 不完全雇傭理論은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不均衡價格·不均衡的 去來가 實現되는 「不均衡狀態의 一般理論(Say의 原理)」이 되었으며, 그리고 또 「均衡狀態의 一般理論(Walras의 法則)」은 Keynes의 經濟學 즉 「不均衡狀態의 一般理論」의 「하나의 特殊한 경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Clower에 의하면, Keynes가 攻擊한 것은 Say의 法則이 아니고 Walras의 法則이며, 사실은 Keynes 經濟學은 不均衡價格·不均衡的 去來를 發生시키는 「Say의 原理」(Say의 法則)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이다. Leijonhufvud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Clower는 Keynes의 Say의 法則에 대한 攻擊은 Lange의 所謂 Walras의 法則에 대한 攻擊이었다고 解釋해야 된다고 強調하고 있다.»⁽²⁸⁾ 이 얼마나 奇異한 理論展開인가. 이 모두 Clower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과 單純商品生産 $W-G-W'$ 을 區別짓지 못하는 데서 나온 結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Clower가 Walras의 法則과 「原版 Say의 法則」이 「形式的인 觀點에서는…同一한 것」(14)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의 眞正한 趣旨은 아마도 (I)(實은 (I)')에 있어 Walras의 法則(=0)과 「Say의 原理」(<0) 즉 Say의 法則을 統合해 뒀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21. 다음에는 Sowell의 Say의 法則에 관한 見解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Sowell은 Walras의 法則을 다음과 같이 解釋하고 있다. 「商品供給額의 合計 플러스 貨幣供給은 모든 商品需要額合計 플러스 貨幣需要와 같다. 이것은 超過商品供給額은 超過貨幣需要와 같다는 말도 될 것이다.»⁽²⁹⁾ 이 Sowell에 의한 Walras의 法則의 規定은 Lange에 의한 Walras의 法則의 規定方式과 一致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9에 있어서의 (A)를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는

$$\Delta M \equiv [S_F + (S_I + S_P) + S_C] - [(D_F + D_{IR}) + D_{IN} + D_P + D_C]$$

으로 바꾸어 쓰면 右邊은 超過商品供給額을 左邊은 超過貨幣需要를 表示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꼭 한가지 言及해 두어야 할 것은, 9에 있어서의 (A)의 右邊은 「t期の 商品供給額」을 左邊은 「t+1期の 商品需要額」를 表示하고 있으므로, Lange가 規定한 Walras

(28) A. Leijonhufvud, *On Keynesian Economics and the Economics of Keynes*, 1968, p. 68, footnote (1).

(29) Th. Sowell, *op. cit.*, p. 34.

의 法則 따라서 Sowell 이 規定한 Walras 의 法則도 成立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서는 이미 言及한 바가 있다. 이 Lange 가 規定한 Walras 의 法則, 따라서 또 Sowell 이 規定한 Walras 의 法則이 成立可能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右邊을 「 t 期의 商品供給額」이 아니라 「 $t+1$ 期의 商品供給額」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도 이미 言及해 놓은 바가 있다. 그럴때 外部에 貨幣 stock 이 存在한다는 假定위에 立脚하면, $t+1$ 期의 市場에 있어 各商品마다 需要量=供給量이 됨으로써 均衡狀態를 이루게 된다는 것에 관해서도 앞에서 이미 言及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右邊에는 超過商品供給額이 左邊에는 超過貨幣需要가 發生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確認해 두기로 한다. Sowell 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Walras 의 法則의 觀點에서 볼 때, 貨幣에 대한 商品의 過剩生産은 內的 不比例(internal disproportionality)의 단순한 하나의 경우에 지나지 않으며, 本質적으로 1商品 x 의 過剩(excess)은 必然적으로 1商品 y 의 不足(deficiency)을 隨伴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Sismondi, Malthus 의 理論의 核心點(central element)이다.」⁽³⁰⁾ 여기서 Sowell 은 二重의 誤謬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생각한다. 첫째는 單純再生産 $W-G-W$ 에 있어 「均衡($t+1$ 期)→均衡($t+2$ 期)→均衡($t+3$ 期)」가 成立된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는 Walras 의 法則을 不均衡理論으로 그것도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서의 一般的 過剩生産을 主張하는 理論으로 錯覺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는 그것과 全적으로 關聯性을 갖고 있지 않는 Malthus, Sismondi 와 關聯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2. 그 다음에 Sowell 은 「Say 의 恒等式(Say' Identity)」이라는 것을 規定하고 있다. 「Say 의 恒等式」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商品供給額의 合計는 항상 always) 商品需要額의 合計와 같다. 왜냐하면 貨幣殘高에 대한 超過需要가 없기 때문이다.」⁽³¹⁾ 이것은 Lange 가 規定해 놓은 「原版 Say 의 法則」과 同一한 것을 意味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그는 또 「Say 의 均等式(Say's Equation)」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고 있다. 「어떤 供給額은 그 生産에 있어 發生되는 所得에 의해서 항상(always) 購買가 될 수 있다(possible).」⁽³²⁾ 여기서 Sowell 은 Say 의 法則을 우리가 規定해 놓은 「Keynes版 Say 의 法則」으로서 즉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가 아니라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되는 Say 의 法則으로서 解釋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Sowell

(30) *Ibid.*, p. 37.

(31) *Ibid.*, p. 35.

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 「Keynes 版 Say의 法則」과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原版 Say의 法則」을 區分하는데 成功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다음과 같은 妙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Say의 恒等式은 Keynes와 Keynesian들에 의해서 물론 全의으로 排擊되었다. 그러나 古典派도 近代經濟學도 Say의 均等式은 排擊하지 않았다」고. (32)

이렇게 보면 Sowell은 「原版 Say의 法則」과 「Keynes 版 Say의 法則」을 區分해 놓고서도 그 自身 兩者가 本質的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明白해졌다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Sowell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Say의 法則을 세가지로 즉 Walras의 法則, Say의 恒等式, Say의 均等式으로 區分한다는 것은 一世紀以上에 걸친 分析과 論爭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33) 형성한 立言이기는 하지만 含蓄의인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IV. Marx의 再生産表式에 나타난 原版 Say의 法則과 Keynes 版 Say의 法則

23. 그런데,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 「Keynes 版 Say의 法則」이 論理的으로 가장 잘 表出되고 있는 理論이 바로 Marx의 再生産表式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資本論』 第二卷 第三篇에는 다음과 같은 再生産表式이 提示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ext{I } 4,000C_1 + 1,000V_1 + 1,000M_1 = 6,000W_1$$

$$\text{II } 2,000C_2 + 500V_2 + 500M_2 = 3,000W_2$$

그런데 Marx는 이 再生産表式을 根據로 해서 다음과 같은 理論展開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그는 〈諸去來를 媒介하는 貨幣流通을 考慮하지 않고〉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그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① 「第Ⅰ部門의 $1,000V_1 + 1,000M_1$ 이라는 生産手段의 〈實物形態〉(die Naturalform)에 있는 生産者의 手中에 있는 이들 價値는 第Ⅱ部門의 $2,000C_2$ 와 즉 消費手段의 實物形態에 있

(32) *Ibid.*, p. 37.

(33) *Ibid.*, p. 38.

는 價値와 交換되게 된다.」.

② 第Ⅰ部門속에 있는 $4,000C_1$ 는 「資本家 사이의 相互交換에 의해서 處理된다.」

③ 第Ⅱ部門內的 $500V_2+500M_2$ 는, 第Ⅱ部門內部에 있어, 第Ⅱ部門의 生産物과 交換된다.」⁽³⁴⁾

그리하여 Marx 에 의하면, 第Ⅰ部門과 第Ⅱ部門에 있어 아무런 支障없이 單純再生産이 進行되기 위해서는 第Ⅰ部門과 第Ⅱ部門과의 사이에 $V_1+M_1=C_2$ 과 같은 「物物交換」이 順調롭게 이루어지면 된다는 均衡條件이 成立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24. 다음에 交換媒介物로서의 貨幣를 除去해서 생각한 物物交換에 交換媒介物로서의 貨幣를 插入시켜서 考察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고 Marx 는 말하고 있다.

① 第Ⅰ部門의 $1,000V_1$ 에 $1,000$ 磅을 支出한다.

② 그 $1,000V_1(1,000$ 磅)을 가지고 第Ⅱ部門으로 부터 $1,000C_2$ 를 購買한다.

③ 第Ⅱ部門은 그 $1,000$ 磅을 가지고 第Ⅰ部門으로부터 $1,000V_1$ 를 購買한다. 이리하여 $1,000$ 磅은 다시 第Ⅰ部門으로 還流하게 된다.

④ 第Ⅱ部門은 500 磅을 가지고, 第Ⅰ部門으로 부터 $500M_1$ 를 購買한다.

⑤ 第Ⅰ部門은 그 500 磅을 가지고 第Ⅱ部門으로 부터 $500C_2$ 를 購買한다.

⑥ 第Ⅱ部門은 바로 그 500 磅을 가지고 또 다시 第Ⅰ部門으로 부터 $500M_1$ 를 購買하게 된다.

⑦ 第Ⅰ部門은 그 500 磅을 가지고 第Ⅱ部門의 $500C_2$ 를 購買하게 된다. 이리하여 500 磅은 다시 第Ⅱ部門에 還流하게 된다.⁽³⁵⁾

以上에서 $1,000$ 磅 · 500 磅의 貨幣는 交換媒介物로서의 機能을 營爲하고 있으며, 또 $1,500$ 磅의 交換媒介物로서의 貨幣는 $5,000$ 磅의 商品量을 流通시키고 있다고 Marx는 말하고 있다.

여기서 Marx 는 앞에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을 下降法에 의해서 物物交換 $W-W'$ 로 還元시켜서 考察한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시 上昇해서 그것을 單純商品生産 $W-G-W'$ 으로 還元시켜서 考察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第1段階의 考察 즉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을 物物交換 $W-W'$ 으로 還元시켜서 考察해서 얻은 結論 $V_1+M_1=C_2$ 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을 單純商品生産 $W-G-W'$ 으로 還元시켜서 考察하는 第2段階의 考察에 있어서는 貨幣가 資本으로서가 아니라 單純한 交換媒介物로서의 機能을 營爲하면서 $V_1+M_1=C_2$ 를 充足

(34) K. Marx, *Das Kapital*, II, S. 401.

(35) *Ibid.*, SS. 419-420.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段階에서 機能을 營爲하고 있는 貨幣는 資本으로서 즉 $G \cdots G'$ 으로서가 아니고, 交換媒介物으로서 機能을 營爲하고 있기 때문에 「貨幣流通의 法則」에 順從하고 있다는 結論이 저절로 誘導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Marx 도 流通貨幣의 流通速度를 보다 「頻繁하게 한다면...보다 적은 貨幣로써도 足하다」⁽³⁶⁾ 고 말하고 있으며, 4 回의 回轉을 假定한다면, 5,000 磅의 商品量은 500 磅의 貨幣로써 流通시킬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剩餘價値의 貨幣化」도 交換媒介物로서의 貨幣가 回轉하는 過程에서 이루어진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론 剩餘價値의 貨幣化(die Versilberung des Mehrwerts)도 貨幣가 그 去來에서 通過하는 其他 모든 形態와 꼭 같이 一時的이다. 第 I 部門의 商品의 貨幣에의 轉換과 第 I 部門의 貨幣의 第 II 部門의 商品으로서의 再轉換과의 사이의 中間期間뿐이다.」⁽³⁷⁾

25.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cdots P \cdots W' - G'$ 에 있어 貨幣가 資本으로서 즉 貨幣資本=有効需要=販賣代金으로서 機能을 營爲하고 있는 環境下에서 $V_1 + M_1 = C_2$ 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考察해본다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Keynes 版 Say 의 法則」이 되게 될 것이다. 즉 擴大再生産의 均衡條件 $V_1 + MV_1 + MK_1 = C_2 + MC_2$ (MV_1 , MK_1 는 第 I 部門에 있어서의 追加可變資本, 利潤消費, MC_2 는 第 II 部門에 있어서의 追加不變資本)이 곧 바로 「Keynes 版 Say 의 法則」 $Z \equiv D$ 또는 $S \equiv I$ 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論理를 鮮明하게 하기 위해서 期間表示를 해서 $V_{1t} + MV_{1t} + MK_{1t} = C_{2t} + MC_{2t}$ 라고 하고 $Z_t \equiv D_t$, $S_t \equiv I_t$ 라고 한다면, 이것은 Marx 의 剩餘價値論 즉 「 t 期의 生産物에 包含되고 있는 利潤이 t 期의 生産物을 購買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Keynes 版 Say 의 法則」의 基底에는 Marx 의 剩餘價値論 즉 「 t 期의 生産物에 包含되고 있는 利潤이 t 期의 生産物을 購買한다」는 理論이 尙在하고 있다는 極히 重要한 事實을 銘記해둘 必要가 있다는 것을 強調해 두어야 한다.

이것을 擴大再生産表式에 依한 例示에 의해서 밝혀보기로 하자.

$$\begin{array}{l} \text{第 1 年度—I } 4,000C_1 + 1,000V_1 + 1,000M_1 = 6,000W_1 \\ \text{II } 1,500C_2 + 750V_2 + 750M_2 = 3,000W_2 \\ \hline \text{I } 4,000C_1 + 1,000V_1 + 500MK_1 \\ \quad + 400MC_1 + 100MV_1 \end{array}$$

(36) *Ibid.*, S. 422.

(37) *Ibid.*, S. 421.

$$\begin{aligned} & \text{II } 1,500C_2 + 750V_2 + 600MK_2 \\ & + 100MC_2 + 50MV_2 \end{aligned}$$

$$\begin{aligned} \text{第2年度—I } & 4,400C_1 + 1,100V_1 + 1,100M_1 = 6,600W_1 \\ & \text{II } 1,600C_2 + 800V_2 + 800M_2 = 3,200W_2 \\ \text{I } & 4,400C_1 + 1,100V_1 + 550MK_1 \\ & + 440MC_1 + 110MV_1 \\ \text{II } & 1,600C_2 + 800V_2 + 560MK_2 \\ & + 160MC_2 + 80MV_2 \end{aligned}$$

$$\begin{aligned} \text{第3年度—I } & 4,840C_1 + 1,210V_1 + 1,210M_1 = 7,260W_1 \\ \text{II } & 1,760C_2 + 880V_2 + 880M_2 = 3,520W_2 \end{aligned}$$

上記의 例示에 있어 第1年度の 利潤貯蓄 $400MC_1$, $100MC_2$ 는 第1年度の 生産物 $6,000W_1$ 에 對한 購買力으로, 그리고 第1年度の 利潤消費 $100MV_1$, $500MK_1$, $50MV_2$, $600MK_2$ 는 第1年度の 生産物 $3,000W_2$ 에 對한 購買力으로 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역시 第2年度の 利潤貯蓄 $440MC_1$, $160MC_2$ 은 第2年度の 生産物 $6,600W_1$ 에 對한 購買力으로 그리고 第2年度の 利潤消費 $110MV_1$, $550MK_1$, $80MV_2$, $560MK_2$ 도 第2年度の 生産物 $3,200W_2$ 에 對한 購買力으로 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6. 以上에서 본 Marx에 있어서의 Say의 法則을 概觀 批評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① Marx는 그의 基礎理論인 投下勞動價値論=等價交換의 理論을 鮮明하게 浮刻시키기 위해서,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을 物物交換 $W-W'$ 으로 一層 還元시켜서 考察할 必要가 있었다(下降法).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原版 Say의 法則」은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等價交換의 理論이 先天的으로 要求해마지 않았던 對象이었으며, 또 「原版 Say의 法則」은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等價交換의 理論에 의해서 쉽게 誘導될 수 있는 對象이기도 했다(198參照).

② 그러나, 歴史的 觀點을 重要視하는 Marx의 立場에서는, 物物交換 $W-W'$ 또는 單純商品生産 $W-G-W'$ 으로 下降法에 의해서 還元시켜서 考察해서 到達한 「原版 Say의 法則」을 다시금 上昇法에 의해서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 Say의 法則 즉 「Keynes版 Say의 法則」으로 「變形」시켜 놓을 必要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Marx의 擴大再生産表式의 均衡條件 $V_1 + MV_1 + MK_1 = C_2 + MC_2$ 를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 形態로 轉換시켜 놓을 必要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Marx는 完成하지 못했으며, 그것을 完成한 사람을 다름

아닌 바로 Keynes 이었다는 것이다. 즉 $V_1 + MV_1 + MK_1 = C_2 + MC_2$ 의 $Z \equiv D$, $S \equiv I$ 으로의 전환이다. $V_1 + MV_1 + MK_1 = C_2 + MC_2$ 는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等價交換의 理論에 立脚하고 있는데 대해서, $Z \equiv D \cdot S \equiv I$ 는 Marx의 剩餘價値論 즉 「t 期の 生産物에 包含되고 있는 利潤이 t 期の 生産物에 對한 購買力이 된다.」는 理論에 立脚하고 있다. 즉 Marx에 있어서의 「原版 Say의 법칙」은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等價交換의 理論에 立脚하고 있는데 대해서, Marx에 있어서의 「Keynes 版 Say의 법칙」은 Marx의 剩餘價値論 즉 「t 期の 生産物에 包含되고 있는 利潤이 t 期の 生産物에 對한 購買力이 된다.」는 理論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다.

27. Shoul은, 204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Marx가 Say의 법칙을 認定하는 「經濟循環의 模型」과 Say의 법칙을 否認하는 「貨幣的交換의 模型」과 Say의 법칙이 作用하고 있을 때에도 發生되는 崩壞의 傾向과 恐慌과 循環의 不可避性을 證明하기 위한 手段으로서만의 Say의 법칙을 一時的으로 採擇한 「動學模型」 등의 3個의 模型을 Marx 經濟學은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Shoul의 所謂 Marx의 「經濟循環의 模型」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을 下降法에 의해서 物物交換 $W - W'$ 으로 還元시켜서 考察해서 到達한 Marx에 있어서의 「原版 Say의 법칙」을 意味하며, 「貨幣的 交換의 模型」은 上昇法에 의해서 「原版 Say의 법칙」을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適用시켜 놓을 경우에 「變形」되는 「Keynes 版 Say의 법칙」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觀點을 轉換할 餘地가 없다. 「Say의 법칙도 Marx의 再生産表式도 總供給과 總需要의 必然的인 一致를 主張하는 同語 反復的인 表現에 지나지 않는다.」⁽³⁸⁾

204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Robinson이 Marx가 Say의 법칙에 대해서 抱懷하고 있었던 見解가 「二元論」이며 「混亂」에 빠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해서, Shoul은 그 「二元論」「混亂」을 3個의 「Marx의 模型」으로 整理한 것은 確實히 一步 前進이었다고 할 수 있을 餘地가 없다. 그러나 Marx가 Say의 법칙을 否認해서 作成했다고 하는 「貨幣的 交換의 模型」이 사실은 「Keynes 版 Say의 법칙」이었다는 것을 Shoul이 明確히 把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認定해야 될 餘地가 없다.

28. 그런데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되는 Marx의 再生産表式 즉 「Keynes 版 Say의 법칙」으로부터는 部分的 過剩生産理論에 誘導되지 못하고 一般的 過剩生産理論은 誘導될 수 없도록 되고 있다. 그 理由는, 「t 期の 生産物에 包含

(38) A. Shoul, "Karl Marx and Say's Law",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ember, 1957, p. 618.

되고 있는利潤이 t 期の生産物에 대한購買力이 된다」는 Marx의剩餘價値論에「Keynes版 Say의法則」은立脚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原版 Say의法則」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Keynes版 Say의法則」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Marx의投下勞動價値論=等價交換의理論의內的 關聯性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Lange도 Clower도 Sowell도 Shoul도 이點에 관해서는言及을 하지 않고 있다. 但 McCracken만은 이點을 特히 問題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商品價値는 單純히 技術的인 方途에 의해서 決定된다. 價値는 物理的이며 內在的인 것이다. 供給量이 크면 클수록 價値도 더 커진다. 商品의 供給量과 價値는 關聯性을 갖지 않는다. Marx가 이 主張을 固守했기 때문에 그는 一般的 過剩生産, 超過供給에 起因하는 價格下落을 說明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供給量이 커지면 價値도 커지고 所有者에게 追加購買力(added purchasing power)을 附與하게 되기 때문이다. …價値가 供給量 增加에 따라서 增加되면 供給量增加에 따라서 購買力도 增加되고 生産만 잘 調節된다면 需要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if value increases with quantity, then purchasing power increases with quantity, so there would always be demand if production were properly proportioned)는 것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投下勞動價値論은 部分的 過剩生産理論과 長期的인 物價趨勢에 관한 說明에만 그친다.」⁽³⁹⁾ 여기서 McCracken도 資本主義的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成立될 수 있는「Keynes版 Say의法則」을 說明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McCracken도 自己가 主張하고 있는「Keynes版 Say의法則」이 Marx의剩餘價値論 즉「 t 期の生産物에 包含되고 있는利潤이 t 期の生産物에 대한購買力이 된다」는理論과 不可不離의關係에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言及을 하지 않고 있다.

29. Marx가「恐慌의 가장 抽象的인 形態」「恐慌의 形式的 可能性」「恐慌의 一般的인 可能性」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관해서言及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Marx에 의하면,「恐慌의 第1可能性」은「購買와 販賣의 分離」이며,「恐慌의 第2可能性」은「支拂手段으로서의 貨幣」라는 것이다.「恐慌의 一般的 可能性은 資本의 形態轉換 自體이며, 時間과 空間에 있어서의 購買와 販賣와의 分離이다. 그러나 이것은 恐慌의 原因은 아니다. 그것은 恐慌의 가장 一般的인 形態에, 따라서 그 가장 一般的인 表現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恐慌의 가장 抽象的인 形態를 가지고 恐慌의 原因이 된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恐慌의 一般的 條件은…資本主義的 生産의 一般的 條件으로부터 誘導되어야 한다.」⁽⁴⁰⁾ 「第2形態의

(39) H.L., McCracken, *op. cit.*, pp. 54-55.

(40) K, Marx, *Theorien über den Mehrwert*, II, (2), Kautskys Ausgabe. S. 289.

恐慌은 支拂手段으로서의 貨幣의 機能으로부터 發生된다. 즉 2個의 相違하는 時點에서 2個의 相違하는 機能을 營爲하는 支拂手段으로서의 貨幣의 機能으로부터 發生한다.」⁽⁴¹⁾ 이 Marx의 立言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解釋하고자 한다. 이 Marx의 모든 立言은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만 成立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購買와 販賣의 分離」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① $W-G$ 過程에서도 發生될 수 있고 ② $G-W'$ 過程에서도 發生될 수 있을 것이다. ①은 外上賣買가 行해지는 경우이며 販賣者는 債權者, 購買者는 債務者가 되며, 따라서 이 경우 交換媒介物로서의 貨幣는 支拂手段으로서의 貨幣로 變形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②는 즉시 購買行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틀테면 1週日後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意味한다. 그러나 이들 ①, ②의 경우가 모두 發生된다고 하더라도 Marx가 말하고 있는 「恐慌의 可能性」은 發生될 수가 없고, 다만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若干의 混亂만이 惹起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 端的으로 말하면, Marx가 말한 「恐慌의 可能性」은, 理論적으로 「貨幣流出」을 前提로 하는 「原版 Say의 法則」이 適用될 경우에 있어서의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經濟變動」에 의해서 完全히 說明될 수 있는 主題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30. Marx는 또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다. 「第Ⅱ部門에 貨幣殘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第Ⅱ部門이 第Ⅰ部門에 2,000을 販賣하고 그리고 第Ⅰ部門으로 부터는 2,000보다 적게 이틀테면 1,800 밖에 購買하지 않을 경우에 限한다. 이리하여 200의 貨幣는 第Ⅰ部門에 還流할 수 없게 된다……이 경우 第Ⅱ部門에는 貨幣基本(ein Geldfond)이 생기게 되고 第Ⅰ部門에서는 200만큼의 生産手段의 過剩生産이 發生하게 된다」⁽⁴²⁾. 여기서 Marx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交換媒介物로서의 役割 밖에 하지 않는 貨幣의 流出이 어떤 生産物의 超過供給現象을 示顯케 하는 것을, 참으로 Marx답지도 않게,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過剩貯蓄으로 因해서 發生되는 一般的 過剩生産과 同一視하고 있는데, 이것은 「貨幣流出」을 前提로 하는 「原版 Say의 法則」이 適用되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經濟變動過程에서 發生되는 「超過供給」을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서만 成立되는 「過剩貯蓄」(oversaving)에 起因하는 「一般的 過剩生産」(Malthus-Hobson이 主張하고 있는 것)과 混同하고 있는 誤謬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두어야만 하겠다. 그러므로 Shoul이 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은 옳지 못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줄 생각한다. 「Ricardo와 本質적으로 다른 Marx의 理論

(41) *Ibid.*, S. 283.

(42) *Ibid.*, S. 459.

構成은, ① 一般的 過剩生産이 可能하게 되는데, ② 그 理由는 交換媒介物로서 媒介 役割 밖에 하지 않고 있었던 貨幣가 價値貯藏手段도 되고, 따라서 交換이 時間的 空間的으로 分離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③ 그 結果 部分的 過剩生産이 不可避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것은 또 累積的 擴大的 下降現象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43).

31. 그런데 Marx의 再生産表式에서 Walras의 法則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Marx는 「貨幣材料의 再生産」(die Reproduktion des Geldmaterials)⁽⁴⁴⁾를 想定함으로써 無限히 供給할 수 있는 貨幣 stock의 存在를 認定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各 資本家가 年生産物속에 있는 剩餘價値를 貨幣로서 引出하는 것, 즉 그가 投下한 것보다 더 많은 貨幣를 流通에서 引出하는 것이 어떻게 可能한가?」이에 대해 Marx는 다음과 같이 答하고 있다. 「여기서 必要한 唯一한 前提, 즉 一般的으로 年再生産量의 各種의 要素를 去來하는 데 必要한 貨幣가 現在 存在하고 있다는 前提는 商品價値의 一部가 剩餘價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 影響을 받지 않는다. 全生産物이 勞動者에 歸屬되고 그들의 剩餘勞動이 그들 自身을 위한 剩餘勞動이며, 資本家를 위한 剩餘勞動이 아니라고 假定하더라도 流通되는 商品價値量은 同一하며, 其他事情이 不變하다고 하면, 그 流通에는 同一의 貨幣量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이 總商品價値를 交換하기 위한 貨幣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 問題될 뿐이다. 그리고 剩餘價値의 貨幣化를 위한 貨幣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은 問題되지 않는다.»⁽⁴⁵⁾ 以上の Marx의 文章을 통해서, Marx가 剩餘價値의 貨幣化(實現)도 總商品價値의 交換에 있어 즉 單純商品生産 $W-G-W'$ 過程에서 把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서 나타나는 貨幣資本=有效需要=販賣代金の 「有效需要의 原理」에 의해서 把握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前提에 「年生産物을 流通시키는 貨幣量은 社會內에 現存하고 있으며 漸次 蓄積되어 간다」는 立言을 附加하면 Walras의 法則이 된다⁽⁴⁶⁾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43) B. Shoul, *op. cit.*, p. 616.

(44) K. Marx, *a.a.O.*, S. 474.

(45) *Ibid.*, S. 478.

(46) *Ibid.*, S. 482.